

영성상담

정무웅신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영성상담이란

영적인 삶에 정진하는 사람들이 하느님과과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완덕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대화진행에 있어 상담자는 하느님과 내담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다. 심리 치료에서 두 사람의 대화이지만 영성상담에서는 3자의 대화이다. 즉 내담자가 하느님 말씀을 잘 듣고 하느님의 인도로 영적 성숙에 나아가기 때문에 영적 상담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기 보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 그러기에 상담자는 하느님 말씀에 영감을 받고 있어야 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인본실존주의 심리학에 의하면 자아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보다 주체의 요인, 즉 삶의 목적과 가치관에 의한 개인적 노력과 자유 의지가 실제로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체의 요인이란 세례때 받은 성령이며, 이 성령에 의해 자아실현을 이루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우리의 정신적 기질을 은총에 의해 점차 정화시켜 가는 가운데 완성시킴을 말한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은총은 인간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시킨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영성상담은 하느님과 만나게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일정한 자질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① 긍정적 인간관을 가질 것.
- ② 상담자와 내담자를 지탱하는 것은 하느님이다.
- ③ 정서적 균형이 요구된다.
- ④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적 삶이 요구된다.
- ⑤ 형제적, 사랑(Agape)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인도 우화에, 원숭이가 물에서 고기를 한마리 건져 나 못가지에 올려 놓았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물음에 “물에 빠져 죽을까봐 살려 주려고”. 지나친 열성은 때로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먼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일이다. 열성과 좋은 지향을 가졌다 해도 강제적 간섭은 회개의 과정에서 그로 하여금 선을 향한 열망을 약화시켜 버린다. 열성으로 회개시키려 하는 자는 스스로가 구원자로 군림하게 된다. 그래도 안받아들이면 내담자에게 도전적 감정으로 대하는 수가 있다. 오히려 박해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구원시키는 것은 하느님이시다. 따라서 스스로 도움을 청해도도록 사랑과 인내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태도와 성향은

- ① 진실해야 하고,
- ② 긍정적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 ③ 상대방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한다.

진실성-지도자는 내담자에게 진실해야 한다. 진실은 신뢰를 쌓고 신뢰는 그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긍정적인 애정을 가진 관심-이는 무조건적 수용이며 Agape적 사랑을 말한다. 이때 내담자는 내적 고요와 평화를 얻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함-내담자의 세계에 들어가 그의 문제를 느끼고 그것을 말로써 표현하며 경험을 유도하거나 제지시킴 없이, 또한 상대의 말을 예측하려거나 선수를 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다.

사실 영성상담자는 내담자의 인식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할 뿐 아니라 내담자가 설명하고 있는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도 내담자 자신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 부분은 내담자 자신이 유일한 전문가이다. 따라서 지도자가 할 일은 내담자 자신이 이 분야를 성령이 이끄시는대로 성령의 뜻에 맡겨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수용적 자세로 듣고 자신에게 죽어야 한다.

*이상은 Bruno Giordani의 IL Colloquio Psollogioo Nella Direzione Spirituale를 참조